



장정수

이에리사

이기흥

장호성

전병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절대강자는 없다

오늘 새 '체육대통령' 탄생

10분 소견 발표, 막판 표심 영향
선거인단 1405명 투표율도 변수

새 '체육대통령'은 누가 될까. 통합 대한체육회의 첫 수장을 뽑는 제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치러진다. 엘리트 체육을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담당하던 국민생활체육회가 올 3월 통합된 이후 명실상부한 통합 체육회의 첫 수장이 마침내 탄생한다. 그동안 공동회장 체제로 통합 체육회를 이끌어왔던 김정행 구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구 국민생활체육회장의 임기는 5일로 종료된다. 새 통합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의 새 회장의 임기 내에 펼쳐진다.

●3강2중? 2강3약?

이번 선거에는 장정수(65)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이에리사(62) 전 국회의원, 이기흥(61)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 장호성(61) 단국대 총장, 전병관(61) 경희대 교수(이상 기호 순) 등 5명의 후보가 출마해 각축을 벌여왔다. 이들은 나름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체육회의 자율·독립성 확보, 재정 확충,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 통합 체육회의 화학적 통합 완성 등에 대해서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에 대해 '3강2중', '2강3약' 등으로 판세를 점쳤지만 선거인단이 대폭 확대된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13년 2월

선거 때는 54명의 대의원 투표로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한체육회 대의원 62명, 회원종목단체 710명, 시·도체육회 278명, 시·군·구체육회 355명 등 선거인단이 총 1405명에 이른다.

지난달 23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4일부터 각자 선거사무소를 연 뒤 본격적으로 득표활동을 벌여왔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저마다의 이력과 공약을 알리는 데 주력했지만, 대면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아무래도 선거인단은 제한적 정보만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소견 발표와 투표율에서 판세 갈릴 듯

쉽게 판세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2대 변수로는 소견 발표와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오후 1시40분부터 개인별 10분씩 소견 발표 기회를 얻는다. 그

동안 각 후보를 비교·평가할 기회가 절대 부족했던 선거인단으로선 소견 발표가 투표권 행사에 앞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보들을 판단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선거운동 과정이 '깁깁'이 선거에 가까웠던 터라,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소견 발표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리란 것이 각 후보 캠프의 공통된 분석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투표율이다. 선거인단이 전국에 흩어져있는 데다, 제97회 전국체육대회도 임박해 현장 지도자 등 관계자들의 선거 참여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투표율이 높으면 대중적 인지도에서 앞선 후보에게 표가 쏠릴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 조직의 고정표를 확보한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KGC인삼공사 서남원 감독(맨 앞)이 KOVO컵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팀을 결승까지 끌어올리는 파란을 일으켰다. 비록 결승에서 IBK기업은행에 패했지만 꼴찌후보를 단숨에 준우승팀으로 만드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정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꼴찌후보 인삼공사 '이유있는 반란'

프로배구 KOVO컵이 열리기 전, 전문가들에게 판도에 관해 물었을 때의 기억이다. "여자부는 5개 팀이 다 우승 후보라 할 수 있다. 한팀은 빠도 된다. 전력 상, 너무 떨어진다." 여기서 외면당한 그 한 팀이 바로 인삼공사였다. 인삼공사는 최근 V리그 2시즌에서 연속 꼴찌를 했다. 그렇다고 올 시즌을 앞두고 큰 투자로 전력 보강을 한 것도 없었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했던 미들턴이 임신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하는 일까지 겪었다.

이런 인삼공사가 3일 청주에서 막을 내린 KOVO컵 마지막 경기까지 살아남았다. 4강전에서 지난시즌 V리그 우승팀 현대건설을 잡는 파란을 일으켰다. 비록 결승에서 IBK기업은행에 0-3으로 완패했지만 리베로 김해란이 1세트에서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한 악재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몰랐다. 꼴찌 후보를 일약 결승까지 끌어올린 기적의 중심에는 서남원 신임 감독의 여성심(女心) 사로잡기가 있었다. 서 감독은 선수들이 실수해도 언성 한번 높이지 않

고, 자상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1세트를 21-25로 아깝게 놓친 뒤, 인삼공사 선수들은 서 감독과 함께 웃으며 2세트를 준비했다. 작전타임 때, 선수들의 눈빛은 서 감독을 향해 집중됐다. 지도자를 신뢰하는 조직원들의 생동감이 묻어났다. 2014~2015시즌 도로공사를 정규시즌 1위로 이끈 서 감독의 지도력이 우연이 아니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부임 이후 서 감독은 외국인선수를 혹사시키는 '몰빵배구'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인적쇄신을 가해 조직내 기득

권을 파괴했다. 주전 세터 한수지를 센터로 포지션 변경했고, 이재은을 주전 세터로 기용했다. 센터 장영은은 레프트로 옮겼다. IBK기업은행에서 트레이드한 유희옥이 주전센터가 됐다. 대체 외국인선수 알레나도 공수에 걸쳐 알짜 팀 플레이어로 확인되고 있다. 원래 수비에 강한 인삼공사는 더욱 끈질겨졌다. 서 감독은 준우승 직후 "우리 선수들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제 V리그에서 인삼공사를 쉽게 볼 수는 없다.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최약체 평가 속 KOVO컵 준우승
서남원 감독, 여성 사로잡기 효과

분데스리가 초대 챔피언 쾰른의 자존심

할로 분데스리가

2012년 5월 5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의 라인에너지 슈타디온에선 팬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경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응원석의 팬들은 앞에 있던 그물망을 찢어버렸고, 경기장은 폭죽으로 인한 검은색 연기로 뒤덮였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해 팬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선수들은 급히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분데스리가 최종전이 벌어진 날로, FC 쾰른은 끝내 2부리그로 강등됐다. 경기 후에도 강등의 충격은 가시지 않아 쾰른대성당 주변에선 팬들의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았다.

FC쾰른은 분데스리가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 중 하나다. 분데스리가가 출범한 1963~1964시즌 정상에 올라 초대 챔피언으로 기록돼 있다. 독일 챔피언십까지 포함하면 총 3차례(1961~1962·1963~1964·1977~1978시즌) 우승을 차지했고, DFB(독일 축구협회) 포갈에서도 4번이나 트로피를 들어올린 저력의 팀이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위용을 잃어갔고, 1997~1998시즌 첫 강등의 수모를 겪은 이후로는 강등과 승격을 반복하며 암흑기를 걸었다.

FC쾰른은 2013~2014시즌 페터 슈퇴거(50)가 새 사령탑으로 내정된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슈퇴거 감독은 2부리그에서 득표 1위를 달리며 쾰른을 다시 1부리그로 올려놓았고, 2014~2015시즌엔 12위로 1부리그 잔류에 성공했

다. 2015~2016시즌 9위를 꺾한 데 이어 올 시즌 6라운드까지는 4위로 고공비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6라운드에선 연승 중이던 바이에른 뮌헨과 1-1로 비겨 4년 전 자신들을 2부리그로 떨어트린 상대에게 일격을 가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에선 '이번 무승부는 승리와도 같다. 쾰른도 무패행진(3승3무)을 이어가며 상승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 쾰른은 독일에서도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스포츠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한 도시 중 하나다. 또 축구단도 회원수 4위(8만1892명), 지난 시즌 전체 관중수 7위(82만1468명)로 큰 규모에 속하는 클럽이다. 아울러 체육대학으로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독일체대가 자리잡고 있고, 근교에 위치한 헤네프에선 독일축구국가대표팀 요아힘 뢰브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아우크스부르크 디에크 슈스터 감독 등 수많은 이들이 지도자 과정을 밟았다. 이뿐만 아니라 쾰른이 속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분데스리가 클럽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선수영입과 육성성이 용이하며, 독일에서도 유명한 에이전트 회사들과 선수재활원도 모두 쾰른에 있다.

이렇게 도시 전체가 스포츠로 둘러싸여 있고, 그만큼 축구를 사랑하기에 4년 전 폭동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겠지만, 그들은 삶 속에는 늘 스포츠가 있다. 그들에게 스포츠는 삶의 애환을 풀어주는 장이고, 응원하는 팀의 전진은 자존심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쾰른(독일) | 윤영진 통신원

이종현·최준용 미리 점찍어둔 양동근

턴오버

순위 추첨 전에 "마음의 준비" 문자

"들에게 일찍 일러줬어요." 모비스 주장 양동근(34)은 3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2016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에 참석해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이 팀에 주어지자 유재학(53) 감독 등 코칭스태프와 얼싸안고 함께 기쁨을 누렸다. 기량이 출중한 선수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코칭스태프뿐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반길 만한 일이다. 신인 드래프트 지명순위 추첨을 마친 뒤 양동근은 뒷이야기를 하나 털어놓았다.

양동근은 추첨을 앞두고 이종현(22·고려대)과 최준용(22·연세대)에게 일찌감치 연락했다. 남자농구대표팀에서 함

게 생활하며 둘과 친분을 쌓았던 그는 "우리 팀에 올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모비스는 선수들 사이에서 훈련이 힘들기로 소문난 구단이다. 선배의 메시지에 이종현과 최준용은 반신반의하며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둘 중 한 명은 모비스 유니폼을 입을 공산이 커졌다. 유 감독은 1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뒤 이종현과 최준용 중 한 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동근은 "내가 메시지를 보냈을 때만 해도 둘은 '실마'했을 것이다. 나도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미삼아 보냈는데, 실제로 둘 중 한 명은 우리 팀에 오게 됐다"며 웃었다. 이어 "팀에 와서 경험해보면 알겠지만, 마음을 다잡고 와야 한다. 만만치 않다는 걸 몸소 느끼게 해주겠다"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덧붙였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com



'팀2002 안성포살롱구장' 건립 기념행사 국내 최초 동형 포탈경기장인 '팀2002 안성포살롱구장' 건립 기념행사가 4일 거스 히딩크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과 박항서, 김현태, 김병지, 김태영, 이문재, 최태욱, 김남일, 유상철, 현영민, 윤정환 등 팀2002 회원 10여명과 황은성 안성시장, 김학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다. 안성 중리동에 위치한 이 경기장은 2002한·일월드컵 4강 주역의 모인 팀2002가 벅스로부터 후원받은 2억원을 기부하고, 경기도 특별조정보전금 3억원 등 총 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6월 완공됐다. 히딩크 전 감독과 팀2002 회원들이 안성 비룡초등학교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스포츠캐릭터링통신원

제97회 전국체전 충남서 7일 개막

제97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아산을 비롯한 충남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소속 2만481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5개 정식종목 및 2개 시범종목(택견·수상스키)에서 기량을 겨룬다. 개회식은 7일 오후 6시, 폐회식은 13일 오후 6시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마감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2만2400명을 선발하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9만1656명이 지원해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4일 밝혔다. 조직위는 개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17개 직종 중 3개 직종을 선택하도록 했고, 17개 직종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통역에는 490명 모집에 8131명이 지원해 경쟁률 16.6대1을 기록했다. 1030명을 모집하는 선수단 지원에는 1만4978명이 몰려 2번째로 높은 경쟁률 14.5대1을 찍었다.

편진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